NH투자증권

NH Morning Meeting Brief

주식전략/경제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전략		나정환/김융
매크로분석	강한 6월 고용, 둔화의 신호도 상존	김 융

대체투자

디지털자산/Weekly	한편, 알트코인 ETF가 몰려오는 중	홍성욱

산업/기업분석

보험산업 (Positive유지)	규제 사이클의 턴어라운드	정준섭
현대무벡스 (Buy신규/TP:7,000원신규)	구조적 성장에 주주환원을 더하면	정연승
한국콜마 (Buy유지/TP:120,000원상향)	편안함에 기대감까지	정지윤

해외주식

미국 자율주행 및 로봇 산업	Physical AI 시대의 개막	고민성/하늘

NH Morning Meeting Brief는 당사 Research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상 투자의견이 제시된 기업 중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NH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전략/경제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전략

나정환/김용 (02-768-7783)

원문보기

- **주식시장 Preview: 한국도 미국도 정책!**
  - KOSPI 주간예상: 2,950~3,180P
  - 상승 요인: 신정부 정책 기대감 지속, 미국 감세안(OBBB) 효과
  - 하락 요인: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단기 차익 실현
  - 상법 개정안: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향후 공청회를 거쳐 논의하기로 결정. 향후 배당분리과세, 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주주 가치 강화하여 한국 주식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2023년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이는 곧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미국 감세안: 트럼프가 추진 중인 미국 감세법안(OBBB)은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 OBBB 법안은 2017 TCJA처럼 법인세를 직접 인하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미국 내에서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 처리를 가능하게 함. 이는 제조업이나 IT 신기술, 제약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우호적. 하반기에 초과근무 수당 및 팁 과세 완화로 미국 소비가 확대되고, 미 제조업 기업의 투자가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 투자전략: KOSPI 지수가 3,100P를 넘어서면서 차익 실현 욕구도 존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 그러나 한국 신정부 정책 기대감에 현재 주식 시장에 대기하는 자금은 풍부한 상황. 또한 2차 추경안 등 신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유동성 공급 정책. 유동성 확대 정책은 결국 주가를 지지. 또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는 업종의 경우, 주가 조정 이후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순매수 자금이 유입된 바 있다는 점에서 정책 모멘텀이 존재하는 업종에 비중확대를 유지할 필요
  - 관심 업종: 중소형 지주, AI(반도체, AI 소프트웨어), 화장품, 제약/바이오, 유통, 증권

- **경제 Preview: 경제지표 쉬어가는 주간**

한국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7월 둘째주는 중요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음. 7월 기준금리 2.5%로 동결 예상
  - 6월 27일 정부의 대출규제가 발표된만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추이를 지켜본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해나갈 것. 5월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래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했음

미국 6월 FOMC 회의록 공개

  - 7월 10일, 6월 진행된 FOMC 회의록 공개 예정
  - 6월 회의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반기 보고 및 다수의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있었음. 기자회견과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 파월 의장은 의회 반기 보고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 지표 추이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월러 이사, 보우먼 이사 등 일부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음

매크로분석

김융 (02-768-7018)

강한 6월 고용, 둔화의 신호도 상존

원문보기

- **견조한 고용 속 균열의 신호도 상존**
  - ① 미국 6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 대비 +14.7만명으로 전월치(+14.4만명)와 예상치(+11만명)을 상회했다. 고용은 4월 14.7만명에서 15.8만명으로, 5월 13.9만명에서 14.4만명으로 총 1.6만명 상향 조정되었다.
  - ② 주 및 지방정부의 교육 부문 취업자수 증가가 헤드라인을 견인했다. 정부 부문의 6월 고용 증가폭이 7.3만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 중 6.3만명이 주 및 지방정부의 교육 부문이었다. 6월 주 정부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고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 ③ 다만,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폭은 +7.5만명으로 전월치(+13.6만명)보다 감소했다. 교육/의료(+5.1만명) 부문이 전월치(+8.3만명)에서 둔화된 것이 주효했다. LA 시위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업(+0.2만명) 고용이 반등했고, 레저/접객서비스업(+2.0만명) 고용도 전월치(+2.9만명)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 ④ 실업률은 4.1%로 전월치(4.2%)보다 하락했다. 고용 증가폭이 견조한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영향이다. 이민 감소 속 실망실업자(구직의사는 있지만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이 없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가 6월 63.7만명으로 전월보다 25.6만명 급등한 것이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

- **이민의 영향: 실업률과 임금에는 중립적일 가능성. 향후 고용은 점진적 둔화 예상**
  - 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 유입이 감소하고, 추방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용시장의 증가폭, 실업률,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연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 (고용 증감) 이민 감소로 인구증가율이 줄어들면 균형 고용 증가폭(=실업률 유지하는 고용 증가폭) 자체가 줄어든다. 세인트루이스 Fed는 2024년 균형 고용 증가폭을 18만명 정도로 추정했는데 현재는 10만명 초반대로 추정된다. 실업률이 동일하더라도 고용 증가폭이 줄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 (실업률) 연내 실업률 영향은 중립적일 수 있다. 2025년 초 외국인 노동자 실업률이 급락했는데, 신규 유입 이민이 급감하고 기존의 이민자가 취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임금) 임금 상승 압력은 제한적이다. 이민 감소(=노동공급 감소)와 노동수요 감소가 균형을 맞춰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남부 국경선을 통한 유입은 급락했으나, 미국 노동시장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② 관세로 미국 고용시장은 하반기 둔화세를 보이겠으나,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관세 부과 전후 노동 수요 변화는 대부분 평균 노동시간 변화로 대응했다(급격한 소비 감소가 있더라도 고용 감소폭 제한적). 둘째, 미국 수입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셋째, 소프트데이터가 개선되면서 하드데이터와의 괴리가 축소되고 있다.

대체투자

디지털자산/Weekly

홍성욱 (02-768-7657)

한편, 알트코인 ETF가 몰려오는 중

원문보기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 부근에 재차 도달. 미국 감세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 재정건전성 노이즈가 재차 부각되며 비트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음. 시장은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지만, 알트코인 ETF들이 승인되며 알트코인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

- **알트코인 ETF가 몰려오는 중**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으며 다양한 디지털자산 ETF가 등장하기 시작
  - 스테이킹 효과가 있는 ETF 처음 등장: 7월2일 솔라나 ETF인 'REX-Osprey Solana + Staking ETF'(티커 SSK) 거래 시작. 솔라나 55%, '21Shares Solana Staking ETP' 4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현물 ETF 구조는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된 셈. 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스테이킹이 가능한 버전이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운용사는 스테이킹 관련 수익으로 ETF의 성과를 소폭 개선하거나 ETF 보수비용을 낮출 수 있음. 또한 SEC가 디지털자산 관련 메커니즘에 친숙해졌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디파이(탈중앙금융) 요소가 결합된 ETF도 향후 출시 기대
  - 디지털자산 지수 ETF 처음 등장: 지금까지는 단일자산 ETF만 존재했으나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GDLC(Grayscale Digital Large Cap Fund)의 ETF 전환이 승인되며 지수 ETF도 등장. GDL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를 보유.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지수 ETF로 패시브 투자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다양한 구성의 지수에 기반한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

- **알트코인 ETF로 인한 수급 영향은?**
  - 새로운 SEC는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중: 기존에는 CME에 선물 시장이 존재하고 선물 ETF가 존재하는 알트코인만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SEC에서 그 기준이 바뀌는 중. 특히 카르다노(ADA)의 경우 CME에 상장되어있지 않고 선물 ETF도 없으나 GDLC에 포함되어있음. 다수의 개별 알트코인 현물 ETF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한 지수 ETF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알트코인이 ETF를 통해 접근 가능하게 될 것
  - ETF로 인한 알트코인 수급 영향은?: 이더리움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은 준수했으나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웠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친숙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ETF로 인한 수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솔라나 선물 ETF나 리플 선물 ETF가 예상보다 시장의 주목을 끌지 못한 점도 현물 ETF의 수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오히려 디지털자산 지수 ETF가 등장했다는 점이 중요할 수 있으며 개별 알트코인 현물 ETF보다 장기적으로 지수 ETF로부터의 수급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산업/기업분석

보험산업 (Positive유지)

정준섭 (02-768-7835)

규제 사이클의 턴어라운드

원문보기

보험주는 2023년 IFRS17 전환 이후 투자자의 관심이 옅어진 게 사실입니다. '회계적'으로 높아진 이익은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가정 규제로 이어졌고, 이는 재무제표 불확실성 확대와 다수 보험사의 배당 미지급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 당국의 규제 스텐스가 완화 기조로 전환된데다 신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도 우호적입니다. 보험주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볼 만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종 투자의견/투자지표 (단위: 원, 배, %, 십억원)

종목명	코드	투자의견	목표주가 (12M)	현재가	PER		PBR		ROE		DPS	
					2025E	2026F	2025E	2026F	2025E	2026F	2025E	2026F
DB손해보험	005830.KS	BUY(유지)	167,000(상향)	123,400	4.6	4.2	0.9	0.7	19.0	19.1	7,300	8,600
현대해상	001450.KS	BUY(유지)	41,000(상향)	27,250	2.6	2.1	0.4	0.4	17.0	18.7	0	0
삼성화재	000810.KS	BUY(유지)	523,000(상향)	441,000	9.3	9.4	1.1	1.1	12.7	11.8	20,000	21,500
한화손해보험	000370.KS	BUY(유지)	7,400(상향)	5,750	2.5	2.5	0.3	0.3	12.2	11.3	0	0
삼성생명	032830.KS	BUY(유지)	156,000(상향)	127,200	10.9	9.9	0.8	0.7	7.6	7.5	5,100	5,600
한화생명	088350.KS	BUY(유지)	4,300(상향)	3,300	4.0	3.6	0.3	0.3	6.9	7.5	0	0
미래에셋생명	085620.KS	HOLD(유지)	6,100(상향)	6,470	8.2	6.9	0.3	0.3	4.0	4.7	0	0

주: 7월 3일 종가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현대무벡스 (319400.KQ/Buy신규/TP:7,000원신규/CP:5,020원)

정연승 (02-768-7882)

구조적 성장에 주주환원을 더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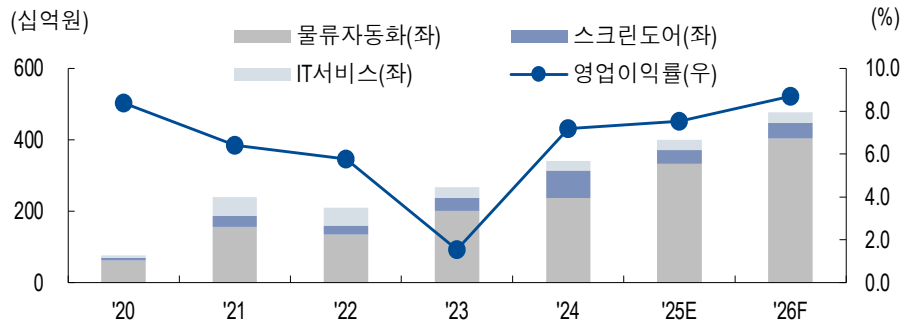
원문보기

국내 물류창고 자동화 수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 물류 자동화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성장 전망. 차입금이 없고, 주주환원정책도 비교 기업과 차별화.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 **물류 자동화 매출 구조적 성장기 진입**
  - 현대무벡스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목표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에 PER 20.5배(글로벌 물류 자동화 솔루션 기업의 2026년 평균 PER) 적용하여 산정. 글로벌 기업 대비 외형은 작으나,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해외 진출 가능성을 고려, 평균 수준의 PER 배수를 적용
  - 물류 자동화 실적은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 음식료, 화장품 등 분야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시장 대응을 위한 신규 자동화 물류창고 수요 증가. 국내 전자기기 제조사와 협업해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무인화 전환도 진행 중. 정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를 도입, 안전, 효율, 친환경 측면에서 물류창고 업그레이드 지원
  - 동사는 물류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과 물류 모듈을 모두 납품 가능. 2차전지, E-commerce, 타이어, 식품음료 등의 다양한 산업군 관련 Track Record 확보. 2025년 1분기 말 기준, 물류 자동화 수주잔고는 4,291억원으로 1년치 이상 일감 확보. 물류자동화 매출액은 2026년까지 연간 20% 이상 성장할 전망

-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차별화된 주주환원정책**
  - 현대무벡스는 2024년 주당 50원 배당실시. 이외에도 250억원(659.4만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주주환원정책 실시. 차입금이 없고, 꾸준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과정에서 현금성자산도 동반 증가할 전망. 이에 현금성 자산 증가세에 걸맞은 주주환원정책(배당, 자사주)이 계속될 전망

현대무벡스 사업부별 매출 및 중장기 영업이익률 전망



자료: 현대무벡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한국콜마 (161890.KS/Buy유지/TP:120,000원상향/CP:99,900원)

정지윤 (02-768-7705)

편안함에 기대감 까지

원문보기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추정. 주요 인디 브랜드사 수출 권역 다변화, SKU 확대, 성수기 Sun 카테고리 물량 증대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극대화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예상.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유효

- **K-뷰티 브랜드와 ODM 간 시너지 창출 늘어나**
  - 투자의견 Buy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120,000원(기존 110,000원)으로 상향. 12M Fwd EPS에 Target PER 19.5배(기존 Intercos 12M Fwd PER 17.5배) 적용한 데 기인. 잘 나가는 K-뷰티 브랜드와 ODM 간 시너지 창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동사는 이에 최적화된 종목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MNC 기업들의 생산기지 다변화 흐름에도 적합. 현재 주가는 2025E/2026F 각각 18.1, 13.5배, 상대적으로 편안한 주가 레벨이라 밸류에이션 메리트 유효하다는 판단

- **2Q25 Preview: 컨센서스 상회 추정**
  -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435억원(+13% y-y), 영업이익 838억원(+17% y-y)으로 컨센서스 상회 추정. 국내 매출액 3,421억원(+15% y-y), 영업이익 550억원(+24% y-y) 추정. 주요 인디 브랜드사 수출 권역 다변화, SKU 확대, 성수기 시즌 Sun 카테고리 비중(36% 추정) 상승과 물량 증대에 힘입어 별도 영업이익률 16%(+1.2%p y-y)로 이익 레버리지 극대화 예상
  - 해외 ①미국 매출액 228억원(+70% y-y), 영업이익 4억원(흑자전환 y-y) 추정. 1공장은 주요 거래선 기반 안정적인 발주 지속, 2공장은 6월 하순부터 생산 가동됨에 따라 비용 발생 제한적. ②캐나다 매출액 90억원(-29% y-y), 영업적자 13억원(적자확대 y-y) 추정. 주요 고객사 인하우스 생산에 따른 주문 감소로 가동률 하락세. ③무석 매출액 542억원(+3% y-y), 영업이익 70억원(+4% y-y) 추정. Sun 수요 강세 지속되며 전분기 대비 성장 예상. 연우 매출액 636억원(-14% y-y), 영업적자 5억원(적자전환 y-y) 추정. HK이노엔 매출액 2,570억원(+17% y-y), 영업이익 252억원(+3% y-y) 추정

한국콜마 2분기 실적 P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2Q24	3Q24	4Q24	1Q25	2Q25E					3Q25F
					예상치	y-y	q-q	기존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660.3	626.5	590.5	653.1	743.5	12.6	13.8	741.5	739.3	717.9
영업이익	71.7	54.5	35.1	59.9	83.8	16.8	39.8	82.9	80.5	71.0
영업이익률	*10.9*	*8.7*	*6.0*	*9.2*	*11.3*			*11.2*	*10.9*	*9.9*
세전이익	59.3	35.5	24.8	32.4	71.4	20.4	120.3	70.0	68.2	58.2
(지배)순이익	34.9	15.4	33.5	13.2	44.5	27.7	236.0	43.6	43.0	35.6

자료: 한국콜마,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해외주식

미국 자율주행 및 로봇 산업

고민성/하늘 (02-768-7707)

Physical AI 시대의 개막

원문보기

미국은 Physical AI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산업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개발 난도가 높아 아직 상용화를 논하기는 이른 상황이나 중장기 효용성은 여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개발 속도 역시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에 당사는 미국 기업 탐방을 통해 Physical AI 산업 관련 미국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해보았습니다.

- **미국은 Physical AI 시대 본격 개막**
  - 지난 6월 16~20일 미국 탐방을 다녀왔다. Physical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Aurora Innovation, 글로벌 Rideshare 기업인 Uber와 Lyft, 중국 로보택시 기업인 Pony.ai, 마지막으로 관련 밸류체인 기업인 Ouster, Ambarella를 방문해 미팅을 진행했고 자율주행 및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생각과 향후 전략을 살펴보았다.
  - 올해는 미국 내 Physical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첫해다. 자율주행 산업은 로보택시 사업을 통해 본격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으나 효용성 측면에서 중장기 방향성은 여전하고 기술 진보로 인해 개발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 **Tesla와 중국의 선두경쟁**
  -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Tesla와 중국의 선두경쟁이 치열하다. 중국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선두 업체인 Tesla의 기술을 참고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이며, Tesla는 2020년부터 FSD 베타 버전을 배포해 현재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자율주행 산업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1) 기술의 안정성 확보와 2) 센서, AI 칩 등 제조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성 확보이다.
  - 중국과 미국은 모두 정부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지방 정부와 도시에 구체적인 시행과 세부 규제를 위임하고 있으며 미국도 주별 규제가 상이하다. 두 국가 모두 자율주행 기술 확대를 위한 규제 단일화와 법적 책임 및 사고 처리 기준 통합화가 예상된다. 국가 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중장기 산업 표준이 될 전망**
  - 테슬라의 End to End Neural Network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산업의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큰 강점은 인간과 같은 주행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는 보수적인 Rule-based 모델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로보택시 출시를 기점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인 Level 4 단계로 확장되었으며 향후 AI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 **가상 데이터의 중요성 확대될 것**
  - 자율주행은 Long Tail 문제 해결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이를 위한 AI 학습에는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며 AI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Edge Case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다. 엔비디아는 고도의 Digital Twin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 **로보택시 산업은 Rideshare 업체에 신규 사업 기회**
  - 로보택시 산업이 개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Uber, Lyft로 대표되는 Rideshare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사는 이러한 우려는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로보택시 시장 규모 확대는 오히려 Rideshare 기업에 신규 사업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다. 가격과 ETA(예상도착시간) 측면에서 소비자와 로보택시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 **휴머노이드 로봇, 멀지만 가야하는 길**
  -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자율주행 산업과 비교해 아직 상용화를 논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HW 구축의 어려움과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 요인이다. 다만, 노동 비용의 감소라는 중장기 효용성이 여전하고 최근 가상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진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용화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 **Uber 최선호주, 테슬라 차선호주**
  - Top Pick으로는 로보택시를 통한 신규 사업 기회가 예상되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Uber를 제시한다. 로보택시 산업 확대에 따른 Rideshare 시장 축소 우려는 점차 해소될 것이다. 차선호주로는 테슬라를 제시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표준이 되고 SW 중심의 사업 전환을 통한 실적 성장 가속화를 예상하나 올해는 자동차 판매 감소와 로보택시 출시 이후 일부 노이즈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탐방 관련 NH투자증권 추천 및 관심 종목 리스트

기업명	Ticker	현재가 (달러)	시가총액 (십억달러)	투자 포인트
우버	UBER.US	92.1	192.5	- 로보택시 관련 신규 사업 기회 예상.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테슬라	TSLA.US	315.7	1,015.3	- 자율주행,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 중장기 산업 성장 수혜 온전히 누릴 전망
엔비디아	NVDA.US	157.3	3,836.9	- Physical AI 산업 확장에 따른 AI Factory 수요 증가 수혜
우스터	OUST.US	21.4	1.2	- 항공 우주, 교통 인프라 등 Non Auto 산업 내 LiDAR 채택 수혜 예상
암바렐라	AMBA.US	66.2	2.8	- Edge AI 환경에서 경쟁력 부각. 자율주행, 로봇 관련 SoC 판매 증가 기대
오로라 이노베이션	AUR.US	5.2	9.1	- 미국 대표 자율주행 트럭 솔루션 개발. 자율주행 트럭 노선 확장 수혜 전망
리프트	LYFT.US	15.7	6.6	- 신규 서비스를 통해 Rideshare 점유율 확대 기대. 자율주행 파트너십 보유
Pony AI	PONY.US	13.2	4.6	- 중국 내 로보택시 1위 사업자. 유럽, 중동 등 지역 확장 계획

주: 주가와 시가총액은 2025년 7월 2일 기준
자료: FactSe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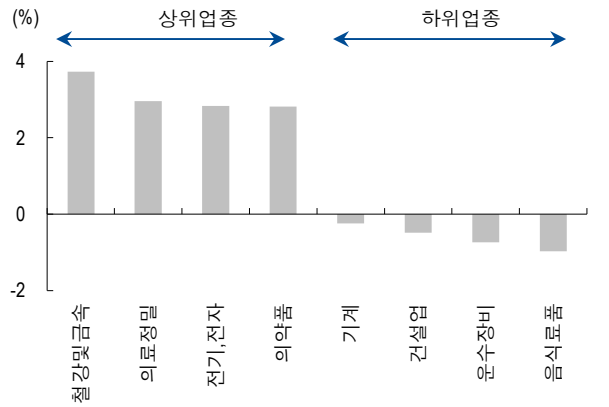
Domestic Market

Trading Summary		Index 3-Jul	2-Jul	1-Jul	30-Jun	27-Jun	Performance/Spread 1Day	1Week	1Month	1Year
거래소	주가지수(P,%)	3,116.27	3,075.06	3,089.65	3,071.70	3,055.94	1.34	1.19	15.46	11.53
	거래량(백만주)	539	697	576	464	382	-158	54	-37	76
	거래대금(십억원)	14,883	14,830	15,185	13,334	13,970	53	237	-355	4,371
코스닥	주가지수(P,%)	793.33	782.17	783.67	781.50	781.56	1.43	0.68	7.16	-5.12
	거래량(백만주)	1,088	946	971	801	889	142	161	55	190
	거래대금(십억원)	5,826	5,437	6,092	6,296	5,628	389	-21	-1,221	-1,038
투자자별순매수(순매도)										
거래소	외국인(십억원)	643	-328	176	-649	-858	643	-1,016	3,049	-32,382
	국내기관(십억원)	548	72	474	476	343	548	1,914	-714	16,656
	개인(십억원)	-1,233	233	-641	189	487	-1,233	-965	-2,320	5,031
코스닥	외국인(십억원)	106	-190	-32	-18	-224	106	-357	-172	-1,414
	국내기관(십억원)	41	17	55	54	47	41	214	309	-473
	개인(십억원)	-149	171	-31	-12	186	-149	165	145	4,385

주: 투자자별순매수의 Performance/Spread는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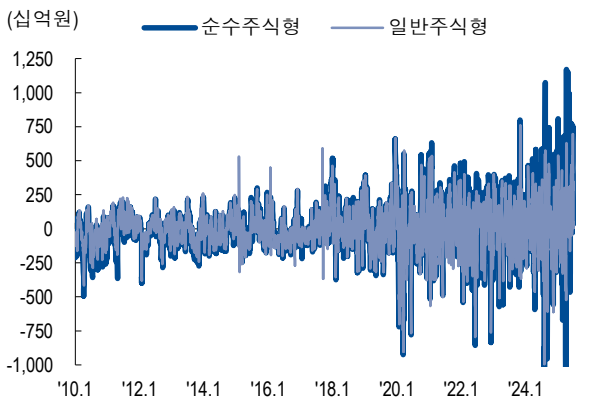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3년만기 국고채(%,%P)	2.45	2.48	2.45	2.45	2.45	-0.03	-0.01	0.11	-0.71
3년만기 회사채(AA-)(%,%P)	2.95	2.98	2.96	2.96	2.97	-0.03	-0.02	0.04	-0.67
콜금리(%,%P)	2.50	2.48	2.50	2.57	2.47	0.01	0.00	-0.04	-1.01
시가총액(조원)	2,962	2,922	2,934	2,918	2,906	40.66	34.49	368.30	277.44
원/달러 환율(원,%)	1,359.40	1,358.70	1,355.90	1,350.00	1,357.40	0.05	0.18	-1.00	-2.24
원/100엔 환율(원,%)	946.82	943.01	940.65	938.98	939.26	0.40	0.92	-1.04	10.17
증시주변자금									
고객예탁금(십억원)	-	66,053	70,413	68,972	67,713	-	-3,003	5,865	11,654
미수금(십억원)	-	981	986	1,044	1,046	-	-4	94	46
신용잔고(십억원)	-	20,737	20,735	20,639	20,530	-	353	2,522	827
순수주식형수익증권(십억원)	-	147,527	147,899	147,278	147,012	-	693	7,661	29,287

Daily Sector Performance



자료: KRX

Domestic Equity Fund Flow



자료: AMAK, Zer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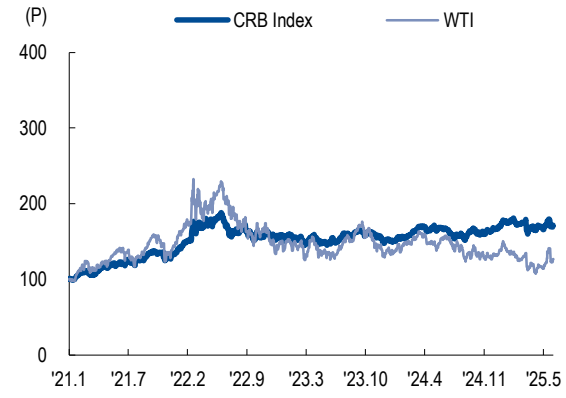
Global Market

		Index					Performance/Spread			
해외주요증시		3-Jul	2-Jul	1-Jul	30-Jun	27-Jun	1Day	1Week	1Month	1Year
미국	NASDAQ(P,%)	20,601	20,393	20,203	20,370	20,273	1.97	3.46	7.78	15.22
	S&P500(P,%)	6,279	6,227	6,198	6,205	6,173	1.31	3.07	6.22	14.69
	Dow Jones(P,%)	44,829	44,484	44,495	44,095	43,819	0.75	4.04	6.05	14.45
유럽	영국(P,%)	8,823	8,775	8,785	8,761	8,799	0.43	0.73	0.58	8.04
	독일(P,%)	23,934	23,790	23,673	23,910	24,033	1.10	1.24	-0.26	30.85
아시아	일본(P,%)	39,786	39,762	39,986	40,487	40,151	-0.50	2.57	4.80	0.39
	대만(P,%)	22,713	22,578	22,554	22,256	22,580	0.71	2.36	6.40	-1.50
	중국(P,%)	8,648	8,725	8,678	8,678	8,762	-0.34	-1.28	2.57	36.59
	인도(P,%)	83,239	83,410	83,697	83,606	84,059	-0.55	1.44	2.20	4.74
라틴	멕시코(P,%)	57,891	58,347	57,814	57,451	57,392	0.13	2.02	0.09	9.47
	브라질(P,%)	140,928	139,051	139,549	138,855	136,866	0.99	2.74	2.85	13.00
국제금리 및 환율										
금리	미국채 10년(%,%P)	4.35	4.28	4.24	4.23	4.28	0.10	0.05	-0.05	-0.12
	스프레드(10년-2년) (%,%P)	0.47	0.49	0.47	0.51	0.53	0.00	0.00	-0.04	0.76
환율	엔/달러(엔,%)	144.93	143.66	143.42	144.03	144.65	1.05	-0.01	0.63	-10.24
	달러/유로(달러,%)	1.18	1.18	1.18	1.18	1.17	-0.42	1.27	3.61	9.47
국제 원자재 가격										
	CRB Index(P,%)	300	301	296	297	300	1.31	1.00	3.27	2.87
	WTI ($/Barrel,%)	67	67	65	65	66	3.06	3.17	10.96	-19.11
	Gold ($/Troy Ounce,%)	3,326	3,357	3,339	3,303	3,274	-0.38	0.07	1.12	42.64
	구리($/Metric ton,%)	10,010	10,010	9,943	9,878	9,879	0.67	3.58	5.40	3.88

	1Week (%,%P)			1Month (%,%P)			PER (배)	
Global Company Performance	해외	국내	Gap	해외	국내	Gap	해외	국내
Intel/삼성전자	-0.27	5.45	-5.72	15.04	13.52	1.52	-	12.89
Micron Technology/SK하이닉스	-4.39	0.00	-4.39	29.46	36.19	-6.72	174.70	9.69
Philips/LG전자	0.54	2.23	-1.69	1.73	9.56	-7.84	-	38.26
NTT Docomo/SK텔레콤	0.00	1.41	-1.41	0.00	11.84	-11.84	12.90	9.97
Google/NAVER	7.64	-12.91	20.55	4.45	34.93	-30.48	22.08	19.92
Toyota/현대차	0.86	4.13	-3.26	-9.30	15.76	-25.06	6.98	4.50
Nippon Steel/POSCO	5.34	18.63	-13.29	-1.99	24.80	-26.79	8.12	21.59
Exxon Mobil/SK이노베이션	3.56	0.00	3.56	9.68	0.00	9.68	14.31	-
Singapore Airlines/대한항공	2.48	2.35	0.14	-1.54	6.67	-8.21	7.86	6.73
Mitsubishi Heavy/현대중공업	0.46	-15.69	16.15	3.31	4.42	-1.11	47.41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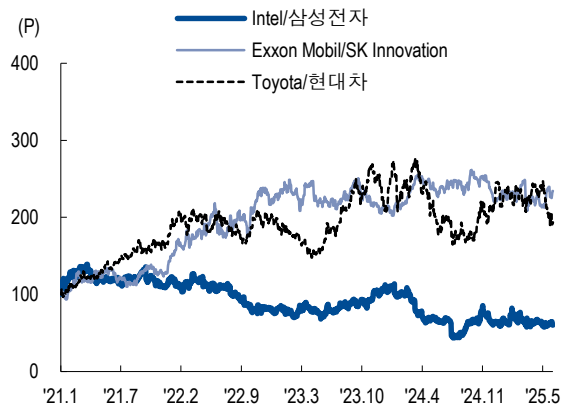
주: 해외=해외주식의 수익률, 국내=국내주식의 수익률, Gap=해외와 국내주식의 수익률의 차

Global Commodities Price Trend



자료: Bloomberg, Dramexchange

Global Company Relative Performance



자료: Bloomberg

〈종목 투자등급 (Stock Ratings)〉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Buy(15%초과), Hold(-15%~15%), Sell(-15%미만)로 구분

- 본 조사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